

# 인간과 자연의 공존

### 윤성필 초대전 '편집된 생태계' 기후 변화 위기 속 경각심 고취 12일까지 전남대 박물관 전시

전세계에서 기후 위기는 주요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발달하고 더 편한 세상일수록 생태계엔 균열이 생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도시는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기후변화 위기 속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 수 있는 전시가 전남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윤성필 초대전 '편집된 생태계'다.

윤 작가는 한국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기존에는 산수화를 통해 담담하고 푸근함을 전해왔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전시장 곳곳에서 선보이고 있는 그림들은 얼핏 보면 기존에 선보이던 풍경을 통해 담담함을 전하는 듯하다. 하지만 면밀하게 보면 지구온난화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숨겨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19점. 전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처음 만나는 그림은 '본질성\_금속비'다. 고요하고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호수와 산의 능선 모습이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역설적이게도 금속비가 내리고 있다.

다음 그림은 열대 우림 속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이질된 풍경'이다. 환경에 균열이 생기면서 기후에도 이상 신호가 생겼음을 전했다.

초입부에서 무너진 생태계의 풍경을 직관적으로 담았다면, 전시의 도입부로 향하자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감의 동물과 자연풍경으로 변화한다. 작가의 시선으로 변화하는 편집된 생태계 모습의 시작점인 셈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이질적인 자연과 도시 그리고 인간을 '공존'으로 새롭게 편집했다.

윤 작가는 "자연과 인간, 도시 모두 놓을 수 없기에 모든 것이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존이란 것은 자연에 관심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작은 실천이 있어야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전시장에서 마주한 귀여운 바다사자의 모습과 코뿔소, 얼룩말을 이루고 있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심이 보인다. 바다수달의 피부와 눈, 코, 얼룩말의 줄무늬 얼룩, 산을 이루는 나무와 바위는 마치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본 듯한 도심의 풍경이 재우고 있다. 이로써 자연과 도시는 공존해 자연과 생태계라는 하나의 모습을 이룬다.

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떠올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전했다.

윤 작가는 "그림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듣는 것과 같이 관객들이 나의 그림을 좋아해 줬



윤성필 '편집된 생태계-바다사자'

으면 좋겠다"며 "전시장에 걸린 그림 속에 내포한 의미까지 알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고 소망했다. 이번 전시는 12일까지 열린다.

윤 작가는 광주에 한국화과를 졸업했으며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다. 동대학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다. /이나라 기자

## 이번주 개봉영화

◇스위치=안하무인 톱스타와 생계형 매니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이야기. 자타 공인 톱배우 박강은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에도 함께 술 먹은 사람이 없어 매니저를 붙잡는 신세다. 부와 인기를 모두 지녔지만 "행복하시죠?"라는 질문에는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한다. 마대운 감독, 권상우·오정세·이민정 출연. 113분. 4일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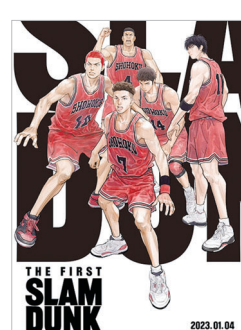
◇정화신은 고양이=끝내주는 모험=2012년 애니메이션 '슈렉' 시리즈의 스프린트(파생작품)로 제작된 솔로 무비 '정화신은 고양이'가 11년 만에 돌아왔다. 탐스러운 황금빛 털, 보송보송한 장갑을 낀 듯 새하얀 앞발, 적당히 통통한 뺨살로 극강의 귀여움을 자랑하는 이 고양이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절절한 목소리와 화끈한 성격이 주는 '반전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조엘 크로포드 감독, 안토니오 반데라스 셀마 헤이엑 출연. 102분. 4일 개봉.



◇3000년의 기다림=알리테아가 소원의 정령을 만나며 벌어지는 이야기. 3000년 동안 자유를 갈망하던 정령은 현재 삶에 만족한다며 바라는 게 없다는 알리테아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알리테아는 기나긴 이야기 끝에 "우리의 고독이 하나가 됐으면 한다"며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한다. 조지 밀러 감독, 틸다 스윈튼 이드리스 엘바 출연. 108분. 4일 개봉.



◇더 퍼스트 슬램덩크=어른들의향을 지극하는 영화. 인기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인 이 작품은 원작자 이노우에 다케히코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원작의 주인공이었던 강백호 대신 168cm의 '넘버원 가드' 송태섭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만화 속 마지막 경기였던 신왕전을 생생하게 담았다. 이노우에 다케히코 감독. 124분. 4일 개봉.



## 국립나주박물관 '아시아의 구슬문화' 발간

국립나주박물관이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를 연구하고 밝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 번째 학술총서 '아시아의 구슬 문화'를 발간했다.

이번 학술총서는 2021년 기획특별전 '금은보다 귀한 옥' 연계 심포지엄으로 같은 해 12월 개최한 '아시아의 옥 문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책은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보존과학적 조사연구성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한반도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다루고 있어 '구슬'이라는 주제로 고대 아시아 지역 해상교류를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의 구슬 문화'는 총 18명의 연구자



가 참여했다. 고고학 및 보존과학 연구자 12명이 7개 주제로 집필했으며 6명이 토론문을 작성했다. 집필전에는 중국 연구자 2명과 일본 연구자 1명이 참여해 국외 연구성과를 담았다. /이나라 기자

## 전남문화재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 성과

### 50~60대 대상...에세이집 발간

전남문화재단이 지난해 도내 50~60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4일 전남문화재단에 따르면 2022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삶의 전환기에 있는 신중년층에게 다양한 예술 경험을 제공해 새로운 자아상 형성 기회를 마련하고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지원사업'은 크게

추진 단체가 지역 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슬명슬명 학교'와 추진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환발견 모임'으로 나누어 추진했다.

'슬명슬명 학교'는 강진버리(강진), 아트스페이스 소울부리(담양), KLP 아트컴퍼니(무안), 생애전환 신중년들(함평), 아호문화나눔센터(해남) 등 총 5개 단체가 운영했다.

또한, 재단은 사업을 추진한 5개 지역의 37명 참여자들이 함께한 에세이집 '자금이 절로 좋아'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이 책자는 문화예술 관계기관, 도내 기초지자체 등에 배포되며, 전남문화재단 홈페이지(<http://jncf.or.kr>)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흠술이 좋아요"...외식업계 올상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